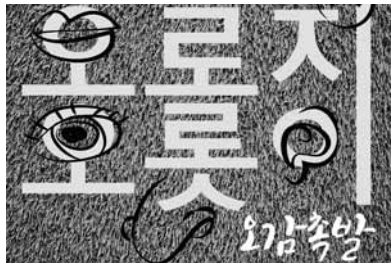


청년문화인 12인 “오감촉발 준비됐나요”



광주시 청년문화기획자 양성

17일 중외공원 ‘아트피크닉’서

유망주 자체기획 오감촉발 진행

청년들은 문화기획자를 꿈꿔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기회를 좀처럼 얻기 어렵다.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실적’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 때문에 문화프로젝트 경험이 없는 청년 문화기획자들은 번번이 좌절한다. 광주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유망주 2017’은 이런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17일 중외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청년문화기획자들이 공동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소통

■오감촉발 오로지 오로이 프로그램

오감촉	내용
번뜩마을(시각)	모자장수 꾸미기, 방울방울 그림그리기, 물감물감 바다칠하기, 종이벽화
콩콩마을(후각)	허브테라피, 엄빠채취, 콩콩아이스크림 만들기
더듬더듬마을(촉각)	촉감만으로 물건 맞추기, 지점토로 얼굴조각상 만들기, 촉각의 왕(볼풀공), 도시쥐 시골쥐(촉각의 방)
두근두근마을(청각)	청각에 의지하여 장애물을 통과하는 헬렌지 체험활동, 물과 컵을 이용한 도레미송 만들기
남남마을(미각)	새로운 맛 느끼기, 맛에 대한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화분컵케이크 만들기

하는 마당이다.

지난 3월 ‘유망주 2017’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전라도지오그래픽은 청년문화기획자 14명을 모집해 3개월 동안 기획자 육성 이론과 현장학습, 도제식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문화현장에 적용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중외공원에서 매주 토요일 열리는 ‘아트피크닉’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고, 시민과 공감할 수 있도록 아트피

크니 주관사인 좋은PR 착한기업과 협업으로 진행된다.

‘오감촉발-오로지, 오로이’라는 주제로, 12명의 유망주 예비 청년문화기획자들이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 등 5개 감각으로 구성된 오감촉발을 만들고 각각의 마을에서 오로지 한가지의 감각에만 집중해 운영하게 된다.

공연프로그램으로 별문매직, 어린이인형극(단방귀, 통방귀)이 열리고 공방촌, 아트스쿨 등 기존에 진행한 아트피크닉 프



유망주 2017

청년문화기획자 육성사업, 문화·예술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기획자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이론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 문화 분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중진기획자로 성장하도록 지원·육성하는 사업이다.

로그램도 진행된다.

공동프로젝트 총괄을 맡은 이하영 감독은 “오감을 통한 감각의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프로그램을 즐기고, 우리 몸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망주 2017’은 이번 첫 번째 공동프로젝트를 실행한 뒤, 각 지역 청년문화기획자들과 네트워크를 쌓는 포럼을 두 차례 진행한다.

오는 10월에도 특정 장소에서 공동프로젝트를 또 한차례 실행할 계획이다. 문의 청년문화기획자 육성사업 사무국 062-225-2015, 광주시 문화예술진흥과 062-613-3461.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병원 ‘광의료심포지엄’ 성료

전남대병원(병원장 윤택업)이 미래의료기술 육성을 위한 광의료심포지엄을 14일 한국광기술원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

이번 심포지엄은 전남대병원·한국광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 공동 주최, 전남대병원 광의료융복합사업단 후원으로 열렸다.

국내 의료계의 큰 관심 속에 열린 이날 행사는 한국광기술원 김영선 원장의 환영사, 광의료융복합사업단 윤경철 단장(전남대병원 안과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국회의원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전남대병원 이지범 피부과 교수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

심포지엄은 1부 광의료 적용 사례 및 제4차 산업혁명과 광의료 신사업, 2부 광의료 기기 사업화 추진 사례 및

미래 광의료 기술 소개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이비인후과의 광의료 적용(전남대병원 조영호 이비인후과 교수) ▲레이저와 피부치료(강북삼성병원 김원석 교수) ▲광기술의 발전과 안과 분야 적용(서울아산병원 김명준 교수) ▲4차산업혁명과 광의료사업 기획(한국광기술원 이병일 본부장)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2부 내용은 ▲광의료 기업의 사업화 추진(링크옵틱스 등 관련 기업 대표 및 연구소장 6명) ▲미래광의료기술(KAIST 박용근 교수, KIST 윤인찬 박사, GIST 김태 교수) 등이다. 또한 이날 조원준 국회보건복지위원의 미래의료환경과 정책에 대한 특별강연도 있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

내일 조성 방향·일정 공청회

(재)광주그린카진흥원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진흥원 1층 대강당에서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실행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광주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 대학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자동차 부품을 클러스터 조성방향과 의의 ▲기술개발 및 인프라 조성방향 ▲사업추진 체계 및 전략 ▲실행계획 주요일정 등이 소개된다.

이어 진흥원 이춘 전기차사업단장, 조선대 성백섭 교수, 호남대 유용민 교수, 대경AT 유진열 대표, 한국광기술원 송상빈 본부장 등 지역의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등의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진흥원 이춘 단장은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면서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각계 각층의 도출된 의견을 사업내용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광주시의 민선 6기 핵심사업으로 국비 1431억원, 시비 1405억원, 민자 194억원 등 총 3303억원을 투자해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에 친환경자동차 관련 핵심 및 요소부품의 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채희종기자 chae@



민화의 소박한 멋 ‘한국민사회’ 회원들이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민화 전시회를 오는 19일까지 민화 전시회를 갖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주요 하천에 방제물품 창고 설치

광주시는 최근 풍영정천 등 주요 하천 인근 4곳에 거점별 방제물품 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수질사고에 신속히 대처키로 했다.

방제물품 보관창고는 지난 3월 이후 풍영정천 기름유출사고와 계면활성제 배출 사고 등 잇따른 수질사고와 관련, 피해 확

산을 막기 위한 초동대응체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설치 장소는 ▲광산구 풍영정천 중류와 하류 ▲북구 영산강 유동교 인근 ▲남구 대촌천 하류지역이며 가습장화, 오일펜스, 흡착포 등 방제물품 16종이 비치됐다. 그동안은 수질사고가 발생하면 자치구 청

사 내 보관된 방제물품을 현장으로 옮겨 방제작업을 해왔다.

김석준 광주시 생태수질과장은 “그동안 풍영정천 기름유출사고 등 수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안타까웠다”며 “거점별 방제물품 보관창고가 마련돼 신속히 방제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 만큼 수질사고를 조기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자기기 성능 테스트 간편해진다

DC전기전자산업센터 개소

광주시는 교류(AC)전원을 직류(DC)로 전환해 각종 전기전자 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DC전기전자산업육성센터’ 개소식을 14일 북구 첨단소재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역 전자·가전 기업인들과 센터 유치·개소를 지원한 지역 국회의원, 산학연협의회, 연구 및 유관기관, 기업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DC전기전자산업육성센터는 DC 전기전자 관련 실증과 제품화를 위해 호남권 최초로 전자기신뢰성시험 시험 장비 등을 구축해 기존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가 이미 갖추고 있는 연구개발 인프라와 연계, 지역 기업의 전자기기 시험·측정·분석을 원스톱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전자부품연구원원은 전자·가전·자동차 등 전자제어기를 필요로 하는 모든 기기의 회로설계와 최적화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기업을 통한 제품화와 상용화를 전담하는 전문생산연구구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DC전기전자산업육성센터 개소는 전자부품연구원 본원의 핵심기술을 광주 지역 기업에 이전해 4차 산업혁명 모델을 만들어가자는 융합형 시장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주시는 전자부품연구원 본원과 광주지역 본부 기술 이전으로 지역 기업을 통한 상품화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는 자동차전장 연구센터 제막식도 동시 진행됐다. 자동차전장연구센터는 지역 가전업체가 친환경자동차 전장부품으로 업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 20층 중 6층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주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시세 1억6천

▶ 매가 1억1천(용5천)

영광 전원주택 매매

▣ 토지 151평, 건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끔 / 주차 완비

▶ 매가 1억 (용 2천)

상무지구 상가 매매

10층 중 6층 (19평)

보 500만 월 44만

▶ 매가 8천300만

북구 중흥동 모아A.P.T

전대 정문 2분 . 광주역 2분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갈끔)

▶ 매가 2억4천(용 1억6,500만)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구분 상가 (소액) 물건 추천

- 북구 신안동 (10층 중 3층 상가)
토 13평, 건 34평 (실평수), 월수익 100만원
▶ 감정가 1억4,600만 → 최저가 5천2백
- 동구 산수동 (다가구 원룸동)
토 83평, 건물 145평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5천
- 남구 서동 (상가주택)
토 78평, 건114평, 1층(상가) 2층(원룸) 3층(주택)
▶ 감정가 5억2천 → 3억6천
- 광산구 장덕동 (7층 중 2층 상가)
건 40평, 수원지구 대방노블랜드 후문(코너)
▶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2억6,500만
- 남구 백운동 589-14 (근린주택 3층건물)
토 65평, 건 145평, 월세 250이상
▶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7천
- 상무지구4층상가
전용면적 19평, 월세 120 이상
▶ 2억6천 → 1억2천
- 상무지구4층상가
전용면적 39평, 월세 240 이상
▶ 5억4천 → 2억4천
※ 반값경매, 특수물건, NPL(다수있음) ※

① 경매교육 (기초반)

▶ 매주 10시 30분
경매기초부터 ~ 입찰까지

② 경매교육 (실전,투자반)

실전 교육듣고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강의

직원모집

경매 부동산 같이 하실분
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상무지구 한국은행,현대아파트 사이)

아파트경매물건 추천

- 서구 용암동 용암3차 대우아파트 (분양면적 35평)
감정가 2억2,300만 → 최저가 1억5,600만
- 북구 용암동 벽산블루밍메가시티 (분양면적 49평)
감정가 3억5천만 → 최저가 2억4,500만
- 광산구 수원동 우미리아파트 (분양면적 33평)
감정가 3억3천 → 최저가 2억3천2백

010-6834-4600

010-6832-9700

010-7384-7800

010-6670-9800